

관광 도약의 해...관광객 1천만 시대 연다

광주시 관광활성화 대책 발표
시티투어 버스·여행상품 개발
5·18 40주년 역사체험 코스도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광주 비엔날레 등을 내세워 2020년을 지역 관광 도약의 해로 삼기로 했다. 23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광주 마케팅 청년 트럭'을 이용해 주먹밥, 상추 튀김 등

광주 7미(味)와 주요 관광지를 전국에 알린다. 오매(五魅) 광주 캐릭터를 공모해 기념품도 출시한다. 시는 배우들의 공연을 보며 5·18의 의미를 되새기는 '오월의 버스', 양림동 등 근대 문화 거리를 여행하는 '100년의 버스',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순환형 시티투어도 운행한다. K.TX, 남도 패스, 시티투어를 연계한 당일, 1박 2일 단기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4월에는 남도 관광센터를 개관한다.

5·18 40주년을 맞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옛 전남도청, 국립 5·18 민주묘지 등에서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주춤했던 해외 관광객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시는 전남도, 전북도와 함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현지 박람회 참가해 지역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일본, 미주, 아랍권 등 해외 관광 마케팅도 추진한다. 특히 관광 수요가 많은 중화권 여행객

을 겨냥해 홍콩 유명 방송인과 함께 하는 여행 가이드 책을 제작하기로 했다.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는 9월부터는 외지 관광객들이 광주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김치 체험 행사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중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올해를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여는 해로 삼고 싶다"며 "광주 비엔날레, 프린지 페스티벌 등 대표 행사를 활용해 광주의 맛과 멋을 만끽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지역 미래인재 육성 교육협력
광주시 25개 사업 67억 지원

광주시는 "올해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25개 교육 협력사업에 예산 67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미래인재 협력사업은 ▲거점영어 체험센터 운영 ▲청소년국제교류 활동 ▲방학중영어체험캠프 운영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생활과학교실 운영 ▲소프트웨어 교육 ▲진로체험지원센터 ▲광주 학생독립운동역사아카데미 ▲광주과학영재학교 운영 ▲용전노래 연계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이며, 오는 3월부터 진행한다.

특히 거점영어체험센터와 청소년국제교류 활동 지원, 방학 중 영어체험캠프는 해외문화 체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선 지원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형일자리 직업교육 간담회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시 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청년 일자리 환경 개선 등을 논의했다.

북구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돕기

동네식당 이용·시장 장보기 등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대책 추진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돕기에 나선다.

북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려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피해 분야별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소비촉진, 중소기업, 소상공인, 재정지원 등 4개 분야 24개의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북구는 전 직원이 동참해 동네식당 이용, 광주상생카드 만들기 운동을 펼치고 가족과 함께 외식 하는 날 운영, 전 부서

전통시장 장보기, 공무원 복지카드 집중 사용 등 소비촉진에 나선다.

특히 오는 3월 3일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북구지부와 협력해 삼겹살 데이 할인 행사를 열고 지역 식당에서 부서·직원모임이나 가족모임을 갖도록 권장한다.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재정지원 사업 조기집행, 근로자 기숙사비 지원 등의 직접적인 지원과 정부 기업지원제도 안내, 기업 민원 신속처리, 피해 기업 상담창구 운영 등 간접적 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대출 및 이차차액 지원 사업을 한 달 앞당겨 이달부터 조기 시행하고 카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1회 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구 재정 신속집행, 피해 기업·소상공인 대상 지방세 납부 편의(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제공 등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찾아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확대

광주시 중·고교까지 실시

광주시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교육은 음식의 소중함을 느끼며 골고루 먹고, 남기지 않는 습관을 학생 때부터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지난해 3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올해부터는 초·중·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기관인 (재)국제기후환경센터는 초·중·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강사단을 기존 5명에서 8명

으로 확장했다. 교육은 시교육청과 협의해 285여학급을 선정해 뒤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원인 및 실태, 분리배출방법, 줄이기 실천방법 등이며, 교육의 이해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초·중·고 모두 2차례(1차 이론수업, 2차 교구활용 및 토론형 수업)에 걸쳐 대상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2017년부터 4만1000여명의 학생에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했으며, 교육 개선을 위해 실시한 2019년도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 88%, 교사 100%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박진표 기자 lucky@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지원

광주시, 28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예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맞춤형 수출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로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시 지원금 1000만원이 포함된 1500여만원 상당의 통합형 바우처(자부담 30% 포함)를 제공한다.

주요 지원 서비스로는 디자인 개발, 통·번역, 전략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 등으로, 수출에 필요한 1000여 수행기관의 6000여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양한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 전반에 대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전문가의 일대일 밀착 컨설팅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미만)은 KOTRA 홈페이지와 수출바우처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광주전남 KOTRA지원단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또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 지원을 위해 수출진흥자금 조기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 유망전박람회 단체 참가, 온라인 수출마케팅 등 다각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생규제 혁신 아이디어 보내주세요

광주시 내달 19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내달 19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민생규제혁신은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중 겪는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다.

공모는 복수공모도 가능하며 단순한 건의·민원·진정, 세금감면·보조금 지급,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공모에 접수된 과제는 규제·복지·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우수과제로 선정된다.

채택된 과제는 최우수상 50만원(1명), 우수상 30만원(3명), 장려상 10만원(16명)의 시상금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공모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를 다운 받아 등기우편(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또는 전자우편(spirit090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광주시는 대국민 공모전에서 '사회복지시설도 셔를 운영 허용'을 건의해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채택된 과제는 광주시 법무담당관은 "생활속 불편을 해소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이번 공모에 시민과 기업,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연체이자 감면·법적조치 유보

광주시는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도판단 정보가 등록된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용도판단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학자금대출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다.

광주시는 분할상환약정 금액의 5%를 초입금으로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채무자와 분할상환약정을 통해 연체자를 감면한 뒤 법적조치를 유보하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을 해제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21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 시민으로,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자다.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시 청년청소년과(613-2722)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또 신청자를 대상으로 광주청년드림은행과 연계한 채무상담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각종 청년 지원제도를 안내해 취업 및 경제활동도 돕기로 했다.

순속수 광주시 청년청소년과장은 "학자금대출은 물론 생활비 등 각종 부채로 인해 금융거래와 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광주시 거주 만 39세 이하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청년은 480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